

『黃帝內經』에 記載된 氣血·神의 運行體系에
關한 研究*

金基郁·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BSTRACT

Through the investigations of the study about the circulative system of Ki(vital energy) and blood, in the 『Huang Di Nei Jing-the internal scripture of Yellow Emperor』, it is summarize as follows:

First, on the circulative system of the nutritive energy and constructive energy, the 28 traditional constellations is corresponding with the 28 kinds of pulses in the 28 areas of the whole human body. therefore, the acupuncture meridians are continuously circulated according to the respiration and the times and seasons. Also, they have applied it to diagnostic and treating procedures, and have primarily performed the comparative palpations between entrance of pulse(radial artery) and common carotid artery, and various treatment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excessive and reinforcement of the deficient; the insertion and rapidly extracting the needle in the feverish condition, and the insertion and retaining the needle in the chilly condition; the moxibustion on the hollowed cutaneous areas; in the case of neither the excessive nor the deficient, therapeutic points are located in the regular meridians."

Secondly, There might had been many theories about the circulative system of the defensive Ki(vital energy), but all they were in the categorical concepts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heaven and the human being, that is, the activity of the defensive Ki(vital energy) is corresponding to the times and seasons. They had proposed some fundamental rules of the treatment, that is, if the abnormal energy's property exist in the Yang, the acupuncture treatment would be considered at the three Yang('s meridians); if the abnormal energy's property exist in the Yin, the acupuncture treatment would be considered at the three Yin('s meridians), which have affected in later ages many of the therapeutic methods in the acupuncture according to the times.

Third, concerning to the avoidance of contraindication considering the circulative system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they have proposed three kind of contraindicated needling methods, which is,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considered in every month and in ten days according to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and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according to Polaris' position in the nine directions. It made a precedent and a foundation of the school on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considering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keyword: Huang-Di-Nei-Jing(『黃帝內經』), contraindications(避忌), Ki(氣), Blood(血)

I. 緒論94)

동양의 고대 문화에서 사상가들은 生老病死、氣血循行 등을 예로 들어서 천지 우주의 변화 규율을 나타내었고, 또한 대·소우주를 상호 類比시키는 天人相應의 사유 모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의학 이론 체계의 점진적인 수립은 이러한 요소를 광범위하게 흡수한 것을 기초로 總結시켰다¹⁾

『黃帝內經』(이하 『내경』으로 간칭)에서는 氣학설、陰陽五行학설、三陰三陽학설과 天人相應 및 形神觀 등의 철학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삼아, 임상적인 경험을 결합하여 의학 이론을 구축하였다. 특히 천인상응에 따른 인체의 생리적인 유행을 경락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내경』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고, 자연계의 유동적인 기와 그 작용 형태가 만들어 내는 갖가지 패턴을 설정하여 인체에 적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衛氣、

營氣 유행 체계이고, 人神、人氣의 유행 체계에 따른 避忌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논자는 『내경』 연구에 있어 인체의 氣血·神이 주체가 되어 生理、病理 현상으로 발현되는 유행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黃帝內經』의 哲學思想 체계는 주로 氣學說、陰陽學說、五行學說、天人相應觀 및 形神關係論을 포괄한다. 氣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소로 인식하였고 氣의 운동 변화를 氣化라 하여 천지 만물 및 자연현상이 발현되는 본원으로 파악하였다. 『內經』에서는 “氣一元論”의 세계관으로 물질 세계의 존재와 운동 변화의 형식을 해석하였다. 陰陽學說은 陰陽의 대립 통일의 법칙으로 대상적 세계의 사물이 운동하는 보편적인 규율을 설명하였다. 이는 자연계 모든 사물을 陰陽의 상대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주 만물이 생성, 사멸하는 근원을 陰陽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陰陽은 상호 의존, 제약, 전화하는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廖育群 外2人: 『中國科學技術史』(醫學卷), 科學出版社, 1998年, p. 21.

관계가 있다. 陰陽은 사물이 운동 변화하는 원천이고 우주의 總規律이다. 五行學說은 사물이 다섯 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었음을 설명한 것에서 나아가 다섯 가지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相生、相克、相侮 관계로써 사물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연계를 설명하여 더욱 세밀하게 사물의 본질과 운동 변화의 규율을 파악하였다. 天人相應의 기본적인 정신은 인간은 대자연과 불가분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제약을 받아 인체는 자연 환경에 대해 조절하고 적응하는 본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사람과 자연은 불가분한 정체 관계로 파악하였다. 形神관계는 철학적인 영역에서는 유물주의와 유심주의 논쟁의 초점이 된다. 그러나 『內經』에서 神의 의미는 보다 광범하여 자연계가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배후 존재자로서 의의가 있고 이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內經』의 철학 사상은 매우 풍부하나 이상의 다섯 방면으로 요약된다. 이 다섯 가지 사이에는 또한 상호 삼투하고 융합되어 『內經』의 철학적인 체계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內經』에서는 이러한 철학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의학 이론 체계인 藏象學說、病機學說、診法學說、治則學說을 수립하였다. 이 가운데 藏象學說은 고대 해부학을 기초로 臟腑의 기능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것을 근거하여 내장 활동의 규율 및 그 상호 연계를 연구하는 학설이다. 藏象學說은 생리학으로 臟腑、經絡、精氣神 등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천인상응의 철학적인 체계로 인체의 생리적인 운동을 경락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內經』에서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초기 의학 이론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옛 사람들은 자연의 세계에서 유동적인 氣와 그

작용 형태가 만들어 내는 존재와 작용의 갖가지 패턴을 짜내어 인체에 적용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氣血의 운행체계이다. 經絡의 운행 체계에 관해서는 『內經』에 向心脈系와 循環脈系가 있다는 것을 “經絡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서 언급하였고, 천인상응하는 운기론적인 측면에서 기혈의 운행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營氣의 運行體系

일반적으로 『靈樞·經脈』이 循環脈系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오늘날 經脈循行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足臂十一脈灸經』에서 발전된 向心脈系은 『靈樞·本輸』가 중심이 된다면 循環脈系은 「經脈」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經脈」의 운행체계에 서 전제가 되는 것은 영기의 운행이고 이것은 “주야로 50바퀴 순환하는 것이 천지의 운행 도수를 다하는”²⁾ ‘五十營’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內經』에서 五十營이 지닌 함의는 매우 깊다. 營은 주행이며 五十營은 五十周이다. 즉 인기의 운행은 주야로 50번 주행하는데 인기는 사람의 경기를 말한다. 천체는 28宿를 도는데 한 宿의 거리는 36분이며, 인체의 經氣가 하루에 50바퀴를 돌면 1008분이 된다. 해가 28수를 운행하고 사람의 경맥은 상하, 좌우, 전후에 28맥으로 전신 16丈2尺을 운행하면서 28수와 상응한다. 「五十營」에서는 營氣의 운행과 呼吸、天時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經脈의 길이, 영기 운행의 속도, 호흡의 차수를 결합하여 이것과 시간과의

2) “五十營備，得盡天地之壽矣。”(『靈樞·五十營』)

관계를 추산하였다. 구체적인 숫자에 있어서 역대 주가의 분석이 분분하지만 이는 기혈운행과 천시가 상응한다는 총칙에서 착안한 것으로 세부적인 묘사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營衛生會」에서는 “그 중에 맑은 것이營氣이고, 탁한 것이衛氣가 된다.營氣는脈속을 순행하고衛氣는脈밖을 유행하며 전신을 끊임없이 운행하여 영위로 50번 순행한 후 다시 회합한다. ……營氣는中焦에서出하고衛氣는下焦에서出한다. ……항상營衛와 함께陽分을 25바퀴 운행하고,陰分에서도 역시 25바퀴 운행하여 일주한다. 그리하여 50바퀴를 운행하면 다시手太陰에會合”하여刻數에 상응한다³⁾. 그 운행 노선은 手太陽 → 手陽明 → 足陽明 → 足太陰 → 手少陰 → 手太陽 → 足太陽 → 足少陰 → 心主脈 → 手少陽 → 足少陽 → 足厥陰 → 督 → 任 → 手太陰이며手太陰에서 시작하여 다시手太陰으로 돌아와 끝나면 다시 시작하여 마치 고리처럼 끝없이流注한다. 이것이營氣가 운행하는 경로이고 역행하고 순행하는 상규이다.水穀之氣가 胃에入하여專精한 것이經隧로 행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여 고리처럼 끝없이 운행하는데, 이러한 현상은天地之紀라 하여日月四時가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에類比하였다. 『黃帝內經·素問』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이론을 수용하여病候、診法、治法 등에 적용하였고 『靈樞』에서는 「終始」、「經脈」、「營氣」、「營衛生會」、「逆順肥瘦」、「陰陽清濁」、「禁服」、「五色」 등의 편에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론을 전개시켰다. 진법은寸口·人迎脈을 위

주로 하였고 “關格”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診法에 의하여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하는治法을 시행하였다.

2. 衛氣의 運行體系

『內經』에서衛氣의운행을논한것에는 여러 설이 있다. 『靈樞·衛氣』에서 “맥 밖으로 떠올라經脈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衛氣이고, 正氣가經隧속에서 운행하는 것을營氣라 한다.陰陽이 서로 다르고 내외가 서로 관통하여 고리와 같이 시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순행한다”고 하여 맥을 중심으로 내외로 구분지어營氣와衛氣를규정하고營氣와衛氣가 함께 운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靈樞·邪客』에서는 “衛氣는 날래고 재빠른氣를 주관하며 먼저 사지의分肉과 피부 속을 끊임없이 운행한다. 낮에는陽分에 운행하고 밤에는陰分에 운행하는데陰分으로 들어갈 때에는 항상足少陰腎經의 사이를 따라서 시작하여 차례로 오장육부로 운행한다”고 하여衛氣는전도가 신속하고 반응이 민첩하기 때문에衛外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야에 상응하여表裏로 운행하는데足少陰腎經이表裏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는營氣가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12經脈을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과는 운행 체계에 차이가 있다. 또한 『靈樞·歲露』에서 “衛氣는 하루에 항상風府에서 크게 모여서, 그 다음날에는 날마다 척추골의 한 마디씩 내려간다. ……衛氣가風府로 행하고 날마다 척추 한 마디를 내려간다. ……衛氣가風府에 이를 때마다腠理가 열리고 ……風府는

3) “以應刻數”. (『靈樞·邪客』) 刻數는晝夜 100刻을 가리킨다.營氣가 하루에 인체를 50번 주행하고 한 바퀴 도는 시각은 2刻이다.

일정함이 없어 衛氣가 응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腠理가 열린다”고 하여 病邪와 서로 대응하여 나타나는 곳이 일정치 않는 衛氣가 있다.

『靈樞·衛氣行』에서는 衛氣의 運行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일년은 12달, 하루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12辰으로 나뉘며 남북의 축인 子午는 經이 되고 동서의 축인 卯酉는 緯가 된다. 天球에는 28宿가 배치되어 있고 천구를 동서남북으로 나눈 한 면에는 일곱 개의 성좌가 자리하며 동서의 축에는 房昴宿가 있어 緯가 되고 남북의 축에는 虛張宿가 있어 經이 된다. 그러므로 房에서 畢까지는 陽이 되어 낮을 주관하고, 昴에서 心까지는 陰으로 밤을 주관한다. 따라서 衛氣의 運行은 하루에 轉신을 50바퀴 도는데 낮에는 陽分을 25바퀴 運行하고 밤에는 陰分을 25바퀴 運行하여 五臟을 돈다.

따라서 평단에 陽氣가 머리로 상행하여 足太陽、手太陽、足少陽、手少陽、足陽明、手陽明의 순서로 하행하고 이것이 足部에 이르러 足心으로 들어가 陰分인 腎 → 心 → 肺 → 肝 → 脾로 運行하여 다시 腎으로 注入한다. 運行도수는 해가 한 개의 星宿를 행할 때(一舍) 사람의 氣는 轉신을 일주하고 8/10을 들고, 二舍할 때는 3바퀴와 6/10을 들고, ……14舍를 運行하면 25바퀴 2/10를 행하여 陽分에서의 運行이 끝나고 陰分에서 氣를 받아 陰分の 位置로 행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一舍에 한 바퀴와 8/10을 행하고 25바퀴를 돌아 目에서 회합한다.

구체적인 運行 시각에 대해서는 물시계의 물이 1척일 때에 인체의 氣는 太陽經에 있고, 2각일 때에는 少陽經에 있고, 3각일 때에는 陽明經에 있고, 4각일 때에는 陰分에 있다. 따

찬가지로 5·6 …… 각에 따라 세 陽經과 하나의 陰分을 運行하며 25각일 때 인체의 氣는 太陽經에 있으며 이것이 한나절의 도이고 50각은 하루의 도가 된다.

衛氣가 낮에 陽으로 행하는 것은 手足三陽經 및 陽蹻에 散布되는 것을 가리키고, 밤에 陰으로 運行하는 것은 五臟의 사이를 행하여 “熏於背膜 散於胸腹”⁴⁾하고 臟腑 및 陰蹻脈이 포함된다. 陽에서 陰으로 들어가고 陰에서 陽으로 나오는 樞紐는 腎과 陽蹻脈이다. 陽蹻는 足太陽의 支別이고 陰蹻는 足少陰의 支別이기 때문에 모두 目에서 만나 아래로 脚跟에 이르고 각각 足의 內外側으로 행한다. 陰蹻는 腎을 따라 目으로 상행하고 腦로 들어가 陰分에서 陽分으로 나오는 주요 통로가 된다. 따라서 陰分에서 陽分으로 나오는 衛氣는 陰蹻를 통하여 目으로 상행하고, 陽分에서 陰分으로 들어가는 衛氣는 目에서 手足三陽과 陽蹻脈을 거쳐 하행하여 足에 이른다. 陰陽의 승강은 衛氣의 주야 運行을 조성하며 수면 등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衛氣가 運行하는 상황은 앞뒤에 상당한 모순이 많다. 앞에서 “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藏”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衛氣가 陽分에서 행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下, 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라 하여 陽分을 運行하는 한 바퀴 중에는 陰分을 運行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 앞에서 언급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앞에서 “日行一舍, 人氣行, 一周與十分身之八”한다고 하였고, 뒤에서는 “水下一刻, 人氣在太陽, 水下二刻, 人氣在少陽, 水下

4) 『素問·痺論』

三刻, 人氣在陽明, 水下四刻, 人氣在陰分"이라 하여 4각에 해당되는 시간에 衛氣가 전신을 한바퀴 돈다고 하여 즉 1주야(100각)에 25바퀴를 운행하는데, 앞에서 주야로 각각 25바퀴 운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에 "日行一舍, 人氣行三陽行與陰分"한다고 하였는데 태양이 하루에 28舍를 행하므로 28바퀴가 얻어지므로 앞에서 언급한 50바퀴와는 22바퀴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앞에서는 衛氣가 陰分에서 25바퀴 돌면서 五臟을 두루 운행하고 역시 태양이 一舍를 운행하는 동안 전신을 1.8바퀴 돌아 陽分에서 운행하는 회수와 시간이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伯高는 衛氣가 陰分을 운행하는 시간은 매 바퀴마다 1각이고 나머지 3각은 모두 陽分을 운행하여 양자가 서로 합하여 한 바퀴가 된다고 하였는데, 한 바퀴에서 독립적으로 陽分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陰分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며, 陽分을 운행하는 것이 3/4를 차지하고 陰分을 운행하는 것이 1/4가 된다.

앞에서는 衛氣가 陽分을 행할 때 太陽, 少陽, 陽明 등 여러 經을 따로 주입하는데, 뒷부분에서는 1刻마다 太陽 → 少陽 → 陽明의 순으로 주입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衛氣의 운행 체계에 대해 당시에 여러 학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두 天人相應 사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日時에 應습하기 때문에 天上에서 운행하는 12月, 12辰, 28宿 등으로 설명하였고 "人氣"라고도 칭하여 사람과 자연계가 상응하는 관계를 체현하였다. 衛氣의 활동과 時가 상응하여 병이 三陽에 있으면 반드시 그 氣가 陽에 있음을 관찰하여 刺하고, 병이 陰에 있으면

면 반드시 그 氣가 三陰에 있음을 살펴 刺한다. 이것이 本篇에서 말한 "일의 장단에 따라 각각 紀로 삼아 자침"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氣가 이르는 때를 신중히 살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때를 예측할 수 있는" 施治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時와 氣의 관찰을 결합한 刺法이다. 이러한 사상은 후세 按時取穴鍼灸의 응용에 큰 영향을 끼쳤고 다양한 按時取穴法을 탄생시켰다.

3. 人神·人氣의 運行體系에 따른 避忌法

이른바 人神·人氣의 소재에 따른 刺灸避忌法은 鍼刺(癰疽를 刺破하는 外科를 포함)와 火灸할 때(年, 月 혹은 季節, 日, 時) 환자의 人身之氣, 혹은 神이 소재하는 부위를 근거하여 開割을 피하거나 刺灸를 禁忌하는 부위이다. 인체의 氣나 神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규칙적으로 인체를 운행하므로 刺灸에 있어서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규칙적으로 일정한 부위를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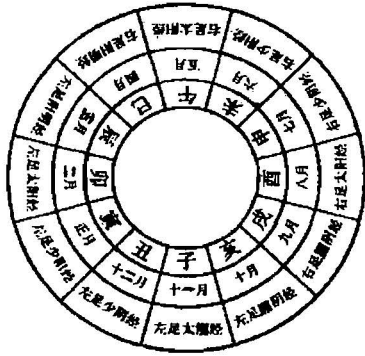
『靈樞·陰陽繫日月』에서 鍼刺에 四時 열두 달에 따라 人氣가 소재하는 足十二經을 피하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足の 十二經脈은 12개월과 상응하는데, ……寅은 正月에 해당하며, 陽氣가 발생하는 시기로서 左足の 少陽經을 주관한다. 未는 六月에 해당하며, 右足の 少陽經을 주관한다. 卯는 二月에 해당하며, 左足の 太陽經을 주관한다. 午는 五月에 해당하며, 右足の 太陽經을 주관한다. 辰은 三月에 해당하며, 左足の 陽明經을 주관한다. 巳는 四月에 해당하며, 右足の 陽明經을 주관한다. ……申은 七月에 해당하며, 陰氣가 발생하는

시기로서 右足の 少陰經을 주관한다. 丑은 十二月에 해당하며, 左足の 少陰經을 주관한다. 酉는 八月에 해당하며 右足の 太陰經을 주관한다. 子는 十一月에 해당하며 左足の 太陰經을 주관한다. 戌은 九月에 해당하며, 右足の 厥陰經을 주관한다. 亥는 十月에 해당하며 左足の 厥陰經을 주관한다. ……正月·二月·三月에는 인체의 陽氣가 좌측에 있으므로 左足の 三陽經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四月·五月·六月에는 인체의 陽氣가 우측에 있으므로 右足の 三陽經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七月·八月·九月에는 인체의 陰氣가 우측에 있으므로 右足の 三陰經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十月·十一月·十二月에는 인체의 陽氣가 좌측에 있으므로 左足の 三陰經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전반부는 인체의 足十二經과 四時 열 두 달 사이에 陰陽이 상응하는 관계를 생리적인 각도에서 논한 시간 생리학의 범주에 속한다. “寅者, 正月之生陽也”와 “申者, 七月之生陰也”로 보면 이는 四時 열 두 달에 따른 天地陰陽의 消長運行과 四時 열 두 달에 따라 陰陽之氣가 인체에서 消長運行하는 것과의 사이에 상호 일치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陰陽之氣가 인체에서 消長運行하는 각 단계(月)에 따라 머물거나 일정한 足陰陽經脈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正月에는 인체의 “生陽”(初生之陽氣)은 左足少陽膽經에 있는 것 등이다. 「陰陽繫日月」의 이러한 생리 이론은 象數學의 造化論 가운데 陰陽學說 및 天人合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象數學의 陰陽 학설로 볼 때, 각 달(즉 陰陽消長 혹은 운행의 각 단계)에 따라 陰陽之氣가 소재하는 방위가 다르며 인체에 있어서도 각 달에 따라 陰陽之氣가 소

재하는 상응하는 經脈도 다르다.

「陰陽繫日月」의 후반부에서는 인체 음양이 소재하는 각 달의 足經에 자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正月、二月、三月은 인체의 氣가 左足少陽經、太陽經、陽明經에 있고, 이때는 이 3개의 經脈에서 순행하는 부위 혹은 穴位에 刺鍼할 수 없다. 다른 달도 이와 같다. 足十二經脈이 분포된 범위가 頭、軀幹、足(手)에는 미치지 않음)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달에 따라 禁刺하는 부위가 足部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달의 人氣가 소재하는 經이 순행하는 모든 부위에 미친다. 「陰陽繫日月」에서는 人氣가 소재하는 곳에 자침할 수 없다는 鍼刺治療 사상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매 월별로 소재하는 足十二經脈의 “人氣”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營衛의 氣가 아니며, 주야로 운행하는 經脈의 氣血도 아니다. 이는 인체와 天地가 상응하는 陰陽之氣이다. 이러한 陰陽之氣는 천지가 四時 열 두 달에 따라 만물의 生、長、收、藏을 지배하고, 인체에서는 四時 열 두 달에 따라 인체의 기능 활동을 지배한다. 따라서 12월에 따라 足十二經에 陰陽之氣를 배속한 것은 四時 열 두 달에 따른 인체의 陰陽五氣라고 할 수 있다. 四時 열 두 달에 따른 禁刺 經脈을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陰陽繫日月」에서 제시한 鍼刺禁忌法을 “十二月人氣所在禁刺法”이라 칭한다면 『靈樞·五禁』에서 제시한 것은 “十日人氣所在禁刺法”의 鍼刺法이라 할 수 있다.

『靈樞·五禁』에서는 “甲·乙이 더해지는 날에는 頭部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되며, 發蒙法으로 컷속에 침을 놓아서도 안 된다. 丙·丁이 더해지는 날에는 振埃法으로 어깨 부위와 咽喉部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戊·己가 더해지는 날에는 足部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되며, 去爪法으로 水氣를 瀉해서도 안 된다. 庚·辛이 더해지는 날에는 關節과 股膝部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壬·癸가 더해지는 날에는 足脛部에 침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이를 五禁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自乘”은 日干이 五行 속성과 같은 계절을 만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甲乙日自乘”은 甲乙일에 봄을 만나는 것으로 즉 봄의 甲, 乙日이며, 나머지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이 篇에서 의미하는 바는 봄의 甲, 乙日에는 頭部와 聽宮穴을 자침할 수 없으며, 여름의 丙, 丁日에는 肩喉 廉泉 부위의 兪穴에 자침할 수 없으며, 四季(2, 6, 9, 12월) 후 18일간

은 腹部와 關節之絡의 穴位에 자침할 수 없으며, 겨울 壬癸日에는 足脛部의 穴位에 자침할 수 없다. 여기에서 十日日에 왜 이러한 부위를 자침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인체와 天地가 상응하는 五行의 王氣가 소재하는 부위에 자침은 응당 피해야 된다는 것을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天地의 五行之氣는 春, 夏, 秋, 冬에 따라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十日의 순서로 왕성해지며, 인체의 五行之氣는 頭面 → 肩頸 → 腰腹 → 股膝 → 足脛의 순서로 왕성해진다. 인체의 五行之氣와 天地의 五行之氣는 상응하기 때문에 계절 및 十日의 추이에 따라 天地의 五行之氣가 순서대로 休王하며, 인체의 五行之氣도 이에 응하여 각각 그 부위를 주관한다. 이는 「五禁」의 四時十日鍼刺禁忌法의 이론적인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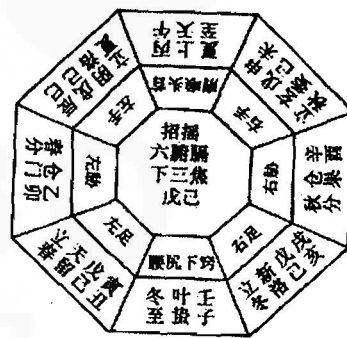
『내경』에서 상술한 두 가지 人氣所在禁刺法(四時 열 두 달에 따른 인체의 陰陽五行之氣가 소재하는 禁刺法과 四時 十日日에 따른 五行五氣가 소재하는 禁刺法)의 이론적인 기초는 모두 天人相應의 시간생리학 이론이며, 이는 또한 象數學의 天人合一論과 陰陽五行學說에 기초를 두고 있다. 人氣 소재에 따른 禁刺法 자체도 “順天因時”하는 時間治療學의 이론적 범주에 속하지만 天時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서 적절한 치료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避忌(회피하여 施治를 할 수 없는 부위)하는 것이다. “천시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극한 치료이다(毋逆天時, 是謂至治)”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人氣의 소재에 따른 鍼刺避忌法은 시간 생리학적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어 『내경』의 人氣禁刺法이 모두 이러한 뿐만 아니라 『내

경』 이후 人氣의 소재에 따른 鍼灸避忌法도 모두 이와 같다. 역으로 말하면 人神、人氣의 소재에 따른 刺灸避忌法에서 의거한 이론은 시간 생리학 범주에 속하며, 특히 晝에 언급하는 逐年、逐日、逐時에 따른 人神가 소재하는 부위의 이론도 시간 생리학적인 이론에 속한다.

『靈樞·九鍼論』에 또한 太一移宮을 근거하여 癰腫 禁刺法을 정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형체가 九宮과 상응하는 정황을 말하면 左足은 立春과 상응하고, 그 日辰은 戊寅·巳丑이다. 左脇은 春分과 상응하며, 그 日辰은 乙卯이다. 左手는 立夏와 상응하며, 그 日辰은 戊辰·己巳이다. 가슴·咽喉·頭部는 夏至와 상응하며, 그 日辰은 丙午이다. 右手는 立秋와 상응하며, 그 日辰은 戊申·己未이다. 右脇은 秋分과 상응하며, 그 日辰은 辛酉이다. 右足은 立冬과 상응하며, 그 日辰은 戊戌·己亥이다. 허리·뽕무니[尻]·前後二陰은 冬至와 상응하며, 그 日辰은 壬子이다. 六腑와 膈膜 아래의 三臟(肝·脾·腎)은 모두 中宮과 상응하는데, 禁忌日은 北極星이 각 宮으로 옮겨가는 날과 각 戊日·己日이다. 이상의 아홉 가지로써 八正이 소재하는 곳과 그에 상응하는 상하 좌우 부위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인체의 어떤 부위에 癰腫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할 경우는 節氣가 바뀌는 날 혹은 戊日·己日을 만나면 膿을 짜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天忌日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立春、春分、立夏、夏至、立秋、秋分、立冬、冬至의 순서에 따라 左足 → 左脇 → 左手 → 喉首頭應 → 右手 → 右脇 → 右足 → 腰尻下竅 → 六腑膈下三焦의 순서로 인체의 氣가 순행한다고 본 것이다.

「九鍼論」의 내용은 「九宮八風」을 계승한 것이다. 「九宮八風」에서 太一이 九宮을 운행하는 법을 논하였고, 「九鍼論」에서는 身形이 九野에 응하는 것을 논한 인체의 太一九宮之法이다. 九宮은 天에는 九野 혹은 九天이고, 地에는 九方 혹은 九州이고, 人에는 九部に 해당한다. 「九鍼論」에서 “身形應九野”는 人의 身形과 天의 九野가 서로 상응하는 아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九鍼論」을 「九宮八風」篇과 결합시키면 “身形應九野”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九鍼論」은 九宮을 근거로 인체를 아홉 부위로 나누었는데 軀幹은 四正之宮과 中宮과 대응하며, 四肢는 四維之宮에 상응한다. 軀幹과 四肢九部와 九宮을 左東、右西、上南、下北、中央의 관계로 하나하나 대응시켜 인체가 자연계의 축소판에 해당되게 하였다. 身形을 九부로 나누어 九野에 상응시킨 방법은 “天人合一” 사상의 전형적인 표현임이 분명하다.

「九鍼論」에서 인체가 九野에 상응한다고 한 목적은 人身九部禁刺의 사상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 즉 인체 각 부위에 癰腫이 생기는데

이를 절개하여 膿血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이 부위에 상응하는 날짜에는 癰을 刺하여 膿血을 배출시켜서는 안 된다. 각 부위에 대응(“所直”)하는 날짜는 “太一所在”하는 날짜와 각 宮에 流注하는 “壬子”、“戊寅”、“己丑” 등의 날짜이다. 왜 각 부위와 상응하는 날짜에 刺潰할 수 없을까? 『九鍼論』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 상술한 『九鍼論』에 이러한 사상이 함축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인체의 九部和 자연계의 九野는 상응한다. 天上의 “太一”은 八節의 순서에 따라 九宮(즉 九野)으로 이동하며 자연계의 “太一”에 상응하는 人神(혹 “人身之太一”)도 八節의 순서에 따라 九部로 이동한다. 자연계의 太一이 某宮에 이를 때 인체의 “太一”도 상응하는 부위로 운행한다. 太一은 天의 神으로 범할 수 없으며, 인체의 “太一”도 인체에서 神이므로 역시 범할 수 없다. 따라서 太一이 某宮으로 운행할 때 이에 상응하는 인체 부위를 刺鍼해서는 안 된다. 癰腫의 치료에 있어서도 이 부위에 상응하는 太一이 宮에 이르는 날짜에 刺潰할 수 없다.

이 밖에 “人身應九野圖”에서 干支로 나타난 날짜도 인체 각 부위의 禁刺日이다. 日支로 말하면 子、午、卯、酉는 四正之宮에 해당하고 寅申、丑未、辰戌、己亥는 서로 상대하여 四維之宮에 居한다. 日干으로 말하면 壬、丙、乙、辛은 四正之宮이고 戊、己는 四維之宮에 居한다. 日干支가 居하는 각 宮의 분포는 干支의 五行 속성에 의해 정해지며 또한 漢 이전에 사용한 干支로 표기하는 24방위의 방법과 같다. 五行으로 말하면 이러한 날짜는 모두 각 節의 王日이다. 叢辰⁵⁾의 각도에서 볼 때 이러한 날

짜는 모두 각 節에 해당하는 月의 建日(즉 “月建”)이고, 月建은 月의 貴神이므로 범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체에 상응하는 부위인 月建이 소재하는 날에도 자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靈樞·九鍼論』의 鍼刺禁忌法은 天人相應 사상과 太一九宮의 象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九鍼論』에서 “天忌”라 칭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내경』 “法天則地”의 治則理論의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九部 禁刺法은 『靈樞』에서 단지 外科의 癰腫에만 응용하였으나 宋金 이후에는 침구학에 응용되기도 하였다.

『내경』에서 상술한 세 가지 禁刺法은 人神、人氣의 소재에 따른 최초의 鍼刺避忌法임을 알 수 있었다. 『내경』에서 같은 종류의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 사상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즉 鍼刺(鍼刺取穴과 刺潰癰腫을 포함)에 人神·人氣이 소재하는 부위를 응당 避忌하고 또한 鍼刺避忌部位 및 그 시간의 확정은 天人相應 사상과 이와 관련된 象數學의 이론에 의거한 것으로 『내경』의 “天人相應”과 “順天因時”의 시간 생리와 치료 원칙의 범주에 속하며, 『내경』 이후 人神·人氣鍼灸避忌法 계통의 탄생에 선례를 개척하였다.

八風 혹은 九方과 신체의 일부분、器官、症候를 대응시킨 원리는 결국 空間分割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여기에서 空間은 한편으로는 內外, 한편으로는 八方으로 분할되어 있다. 外의 八方에 內를 加하면 九方이 된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극히 일반적인 사고의 형식임이 틀림 없다. 차츰 풍부해진 경험적인 지식을 그 구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체계화하려면 이러한 간단한 분류 원리로는 결국 파탄에 이르거나 적

5) 叢辰 : 점성술 용어. 陰陽五行을 년·월·일·시와 배합하여 인간사를 설명한 것으로서, 여러 吉星과 凶星을 만들어 내었으므로

叢辰이라 한다.

어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잡다한 경험적인 지식을 무엇인가의 원리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이론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일정한 유효성을 가져야만 하였다. 한의학의 이론은 물론 몇 가지의 통로가 있지만 이러한 분류의 통로를 거쳐 형성되었던 것이다⁶⁾.

4. 人神 및 人氣避忌의 意義

“人神”의 개념을 파악하는 의미는 人神鍼灸避忌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대 의학, 자연 철학 과 도교에서는 精、氣、神을 인체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보았다. 그렇다면 인체의 생명을 이루는 人身의 神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내경』과 후세 의학 저작에서 관련된 이론을 근거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神者，正氣也”(『靈樞·小鍼解』)；“血氣者，人之神”(『素問·八正神明論』)；“故神者，水穀之精氣也”(『靈樞·平人絕穀』).

『내경』의 이 세 구절에서 神의 본질을 인체의 氣로 나타내었다. 바로 人身의 神은 곧 人神의 氣이기 때문에 『내경』에서는 “神氣”，“精神”이라 하였다. 예컨대 “所言節者，神氣之所游行出入也，非皮肉筋骨也”(『靈樞·九鍼十二原』)，“五臟者，所以藏精神魂魄者也”(『靈樞·衛氣』)，“百歲，五臟皆虛，神氣皆去，形骸獨居而終矣”(『靈樞·天年』)라 하였다.

침구에서 피해야 하는 人神도 이러한 실질적인 氣인 人身의 神이다. 『醫宗金鑑』에서 “四季人神所在之處，謂人神之氣初動之處，同乎天之流行也，禁鍼灸恐傷生氣也。人神常在心，

春在左脇者肝主升也，秋在右脇者肺主降也，冬在腰者腎主藏也，夏在臍者脾主火也”⁷⁾라 하였다. 여기에서 人神 혹은 神氣는 人身의 生氣이고, 四季의 人神은 즉 四時五臟을 주관하는 氣이다.

人身의 氣로서 人神은 보통의 氣가 아니고 이는 사람의 생명 기능과 연계되어 있으며 후자는 사람에게 갖추어진 생명이 기능하는 물질적인 氣라고도 한다. 『靈樞·天年』에서 “黃帝가 ‘무엇을 神이라 합니까?’라고 하자, 岐伯이 ‘氣血이 조화롭고 營衛의 운행이 원활하며, 五臟이 모두 형성된 후 神氣가 心에 저장되고, 魂魄이 갖춰져야 비로소 완전한 인체가 이루어 집니다”라 하였다. 『千金要方』 권2에서도 “妊娠十月，五臟俱備，六腑齊通，納天地之于丹田，故使關節，人神皆備，俟時而生 …… 十月諸神備，日滿即產矣”라 하였다.

사람이 胚胎하여 발육하는 과정에서 人神은 臟腑氣血이 형성된 후 마지막으로 형성된다. 또한 각종 人神이 모두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胚胎가 성숙하고, 생명이 있는 유기체인 진정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氣、血、精은 人神이 형성되는 기초이다. 宋代의 虞庶는 “神者，精氣者之化成也”⁸⁾라 하여 人身의 神은 精氣가 화생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다. 『靈樞·本神』에서도 “肝藏血，血舍魂 …… 心藏脈，脈舍神 …… 脾藏營，營舍意 …… 肺藏氣，氣舍魄 …… 腎藏精，精舍志”라 하였는데, “血”、“脈”、“營”、“氣”、“精”은 모두 氣 혹은 精氣(광의)에 속하고, “神”、“魂”、“魄”、“意”、“志”는 모두 神(광의)에 속한다. 神은 精氣에서 화생하였을 뿐만

7) 『醫宗金鑑』 卷70 「刺灸心法要訣」.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63年, p. 1144.

8) 秦越人: 『難經集注』 「四十二難」,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p. 64.

6) 山田慶兒: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第五十二冊) 京都 1980年.

아니라 精氣가 깃들여 있기도 하다. 精氣가 五臟에 내장되어 있고 바깥으로 전신에 산포되기 때문에 神도 五臟에 잠장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전신으로 유행한다.

인체의 神과 精氣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人神鍼灸避忌와 人氣鍼灸避忌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黃帝蝦蟆經』에서 왜 人神을 피기하고 또한 人氣 혹은 五氣를 피하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체의 五氣는 일정한 시간에 전신의 기능 활동을 지배하는 氣이고 人神은 인체의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氣로서, 양자에 실질적인 구별은 없다. 張介賓은 “故凡鍼灸家當知忌避者，恐傷其五氣耳”⁹⁾라고 하였다. 鍼灸에서 人神·人氣를 避忌하는 것은 모두 인체의 중요한 생명 기능인 氣의 손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내경』에서 四時十二月에 따라 人氣가 소재하는 것에 자침을 금기한 것은 人氣를 피하여 자침하는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十干日 禁刺論과 太乙九宮 天忌論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禁刺해야 하는 일정한 부위만을 강조하였지 避忌해야 하는 것이 人神이나 人氣라는 언급은 없다. 그렇지만 神과 氣는 본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人神이나 人氣를 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人神鍼灸禁忌論과 象數理論의 관계를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人神鍼灸禁忌論은 象數學의 天人合一(천인상응)사상과 神煞論 혹은 干支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개시킬 수 있다.

첫째, “人神”의 개념이 탄생한 것과 象數學의 神煞 개념은 계승 발전의 관계가 있다. 象

數學 神煞論은 氣가 神이고 혹자는 神煞이 곧 氣라 하였다. 象數學의 神煞論에 따르면 人身에는 반드시 神이 있다고 하였는데 人身에 氣가 있고 氣가 있으면 곧 神이 있기 때문이다. 의학의 人神鍼灸禁忌論에서 人神은 실제로 人身의 氣이고 氣를 神으로 보아 象數學에서 神煞概念의 의의와 일치한다. 또한 天人合一論에 의하면 천지의 神煞은 천지의 氣이고 人神 역시 인체의 氣이다. 人神의 개념이 탄생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人神이 유행한다는 이론도 象數學의 天人合一論과 神煞論의 영향을 받았다. 『黃帝蝦蟆經』에서 “夫神上法天，而下行無已，終而復始”¹⁰⁾라 하여 人神의 유행과 天(神)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天人合一 사상이 人神이 游行하는 이론 속에 명확히 표출된 것이다. 天人合一論에 의하면 人神의 유행 방식과 天神의 유행 방식과는 대응하면서 일치하는 관계가 있다. 天神이 유행하는 방식과 天의 구역 혹은 방위의 구획 방법은 유관하다. 天球를 나누는 방법에는 九分法(즉 九野 혹은 九天)、十二分法(黃道十二次)、五分法(사방 및 중앙)이 있다. 九野는 九宮으로 표시하고, 12次는 12支(辰)로 표시하고, 5분법은 十干으로 표시(혹은 곧바로 동, 서, 남, 북, 중앙으로 나누기도 함)한다. 그러므로 天神이 유주하는 것에 九宮을 따르는 것, 12辰을 따르는 것, 十干을 따르는 것, 四方 혹은 五方を 따르는 것이 있어 天神이 유행하는 방식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즉 매년 한번씩 이동하는 年神, 每時(3개월)에 한번 이동하는 時神, 每月 이동하는 月神, 每日 이동하는 日神, 각 時辰마다 이동하는 時

9) 張介賓: 『類經圖翼』 卷4 「經絡」, 人民衛生出版社, 1965年. p. 144.

10) 不著撰人: 『黃帝蝦蟆經』 「年神舍九部法第二」, 中醫古籍出版社, 1987年. p. 33.

神, 또한 몇 일 혹은 몇 십 일에 한번 이동하는 神煞이 있다. 예를 들면 『五行大義·論諸神』에 기재된 “九宮十二神”은 九宮을 순행하는 年神이다. 여기에서 天符、太陽 등은 “天一、太一과 함께 九宮에서 운행하여 1년에 한번 옮기니, 9년이면 제자리에 돌아온다”¹¹⁾고 하였다. 이와 상응하여 人神이 이동하는 이론에서 人神도 인체의 부위에 따라 9部、12部、5部(혹 4部)、10部、30部、60部の 人神이 있다. 또한 하나의 부위를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 行年人神、四時(계절)人神、逐日人神과 逐時人神(天逐月臉神)이 있다. 行年九部人神、九宮尻神과 行年12部人神은 인체의 9부와 12부를 따라 이행하는 年神이 있고, 四時人神은 인체의 四部(臍、腰、左右脇)를 순행하는 四時的 人神 등이 있다.

셋째, 人神禁刺灸 및 五氣禁刺灸의 사상도 神煞宜忌論과 관련이 있다. 象數學의 神煞宜忌論에는 太歲、月建、日建 등 1년、1월、1일의 主神과 靑龍、白虎、朱雀、玄武、鈎陳 등 天의 大神을 거스를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神이다. 人神·人氣鍼灸禁刺論에서 人神、인체의 생명 기능 활동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神氣이다. 그러므로 역시 훼손할 수 없다. 이러한 鍼灸避忌人神、人氣 사상은 神煞論의 主神·大神 금기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내경』 및 후세 침구 저서에는 확연하게 대립하는 치료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침구에는 반드시 得氣、得神해야 하는 것으로 즉 氣血 혹은 神이 소재하는 곳을 선택하여 침구를 시행하는 것이 있다. 다른 하나는 鍼灸에

는 避氣、避神을 해야 하는 것으로 즉 人氣 혹은 人神이 소재하는 곳에 침구 시술을 금기하는 것이 있다. 왜 스스로 서로 모순이 되는 이러한 치료 원칙이 있게 되었을까? 치료 원칙이 다른 두 가지는 이들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得氣得神하는 침구의 원칙은 임상 경험을 종합한 것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임상에서 刺鍼하여 得氣하는 지의 여부는 의사와 환자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른바 “鍼感”)이다. 得氣의 여부는 刺鍼하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得氣하면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得氣하지 못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침구 임상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고대의 의가들은 바로 이러한 임상 경험을 통해 침구에서는 마땅히 得氣(神)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鍼灸避忌人神、人氣의 원칙은 象數學에서 神煞避忌의 관념에서 나왔고 이의 탄생은 침구 임상과 유관하지만(이들테면 暈鍼、자침 후 감염 등) 그러나 임상적인 경험에서 도출해 낸 것은 아닐 것이다.

III. 結 論

이상을 통하여 『黃帝內經』에 기재된 氣血 및 神의 운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天人相應 이론에 바탕 한 『黃帝內經』에 기재된 氣血 및 神의 운행 체계는 주로 營氣와 衛氣 방면이었다. 먼저 營氣의 운행 체계는 50營으로 이는 천체에 운행하는 28宿와 인체의 12·14경맥과 상응시켜 경맥의 운행 도수의 상규로 삼았다.

11) 金秀吉 外1人 共譯: 『五行大義·論諸神』, 大有學堂, 1998年, p. 480. “與天一、太一行于九宮, 一歲一移, 九年復位.”

그리고 寸口·人迎脈을 위주로한 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처방을 제시하였다.

2. 衛氣의 운행 체계에는 당시 여러 학설이 있었지만 모두 12月、12辰、28宿 등 天人相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衛氣의 활동과 時를 상응시켜 음양의 위상에 따라 施治原則을 제시하였는데 후세 다양한 按時取穴法의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3. 『黃帝內經』에서는 人氣、人神의 운행 체계에 따른 避忌法을 중시하여 十二月人氣所在禁刺法、十日人氣所在禁刺法、太一九宮之法 등의 禁刺法을 제시함으로써 人氣·人神의 소재에 따른 人氣·人神鍼灸 避忌法에 대한 영향을 끼쳤다.

4. “人神”의 사상은 氣、血、精을 기초로 하였고, 그 본질은 인체의 氣이며 생명 기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人身의 神과 人身의 精氣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象數學의 天人合一論과 神煞論의 영향을 받아 人神의 유행 방식과 天神의 유행 방식과는 대응하면서 일치하는 관계가 있다.

IV. 參 考 文 獻

1. 『黃帝內經素問』
2. 『黃帝內經靈樞』
3. 廖育群 外2人: 『中國科學技術史』(醫學卷), 科學出版社, 1998年.
4. 山田慶兒: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

場」 東方學報(第五十二冊) 京都 1980年.

5. 『醫宗金鑑』,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63年.
6. 孫思邈 著、劉更生 外8人 点校: 『千金方』, 華夏出版社, 1994年.
7. 秦越人: 『難經集注』,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8. 張介賓: 『類經圖翼』, 人民衛生出版社, 1965年.
9. 『黃帝蝦蟆經』: 中醫古籍出版社, 1987年.
10. 金秀吉 外1人 共譯: 『五行大義·論諸神』, 大有學堂, 1998年